

우리나라 寺刹建築의 立地와 交通의 聯關性에 관한 研究

金鍾憲

(培材大學校 土木建築工學部 助教授)

1. 序論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우리나라 寺刹建築은 초기에는 평지가람이 주도하다가 통일신라 중기부터 密敎가 전하여지고 禪宗이 성행함에 따라 佛敎의 內的 省察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어 深山幽谷인 태백산, 가야산, 지리산 등 깊은 산속에 산지 가람이 많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藤島玄治郎과 杉山信三 등의 견해를 지금까지 그대로 인정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金奉烈은 그간의 불교사찰에 대한 분류방법이 각각 타당성을 갖기는 하지만¹⁾ 탐제, 입지

조건, 축성 등이 자기 독립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다른 요인과 얽혀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분류기준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생겨나는 유형의 수가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분류 대상을 소수의 대표적 사찰에만 한정시켜 보다 많은 수의 사찰이 분류에서 누락되었고, 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없이 현상적으로 파악할 때의 오류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空間의 性格을 파악할 수 있는 建築의 分類와 함께 시대적 사회상을 반영할 수 있는 時代的 分類 그리고 사찰의 宗教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信仰體系의 분류가 서로 결합하여 총체적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분류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견지에서 佛敎의 敎理的 해석을 중심으로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을 구분하고 있다.²⁾

그러나 그도 인정하고 있듯이 신앙체계와 사찰건축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사상적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고 시대적 고증도 어려운 상태라 이의 명확한 설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다. 그는 또 平地寺刹과 山地寺刹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적

* 이 연구는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우리나라 사찰건축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성형식과 이 형식을 시대별로 고찰하는데 모아졌다. 藤島玄治郎, 「朝鮮建築史論」은 塔의 수를 기준으로 單塔式, 雙塔式으로 나누고, 이를 平地와 山地의 입지조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平地 單塔가람이 平地 雙塔가람으로 변하고 이는 다시 山地 單塔式 가람배치가 山地 雙塔式 가람배치로 변천해간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은 無塔式의 유형을 추가하고, 平地에서 山地로 변화는 과정에 丘陵型을 추가시켰다. 그는 또 寺刹을 中心軸型, 直交型, 自由型으로 분류하여 공간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朴萬式, 「韓國古代伽藍의 配置 및 平面計劃에 관한 研究」는 塔의 재료에 의해 木塔式, 石塔式, 塼塔式으로 분류를 추가하였고, 金堂을 복수의 금당제와 단수의 금당제로 분류하고 있다. 또 윤장섭, 「韓國建築史」는 조선시대에 보편화된 일반적인 산지가람의 유형을 설정했고 이의 형식적 원형을 신라 말의 선종가람형식에서 찾고 있다. 또 金正秀, 「韓國의 宗教建築에 관한 研究」는 佛敎寺刹을 宗教建築의 계획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安英培, 「韓國 佛寺의

空間構成에 관한 研究」는 前期 整調形式과 後期 散調形式의 개념적 분류를 시도하였다. 趙昌翰, 「韓國 寺刹과 祠堂 神殿의 建築空間 構成」은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定型의 型式과 非定型의 形式으로 구분하고 있다.(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2)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 구성과 배치 형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대지조건 이외에도 사회적 요인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평지형과 산지형의 두 유형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동시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다. 즉 불교 전래기에도 이미 산지가람이 존재했으며 高麗에는 平地型인 松岳十寺와 山地型인 地方의 禪宗寺刹이 병존했다는 것이다. 조선 초의 대표적인 사찰인 양주 檜岩寺는 평지사찰로 이러한 입지여건은 시대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찰의 사회적 성격에도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

李演魯는 산지사찰이 禪宗과 密敎의 영향이라는 시각에 대하여 오히려 교종인 화엄사찰이 급경사의 산지에 배치시킴으로서 위계적인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고⁴⁾ 선종사찰은 산지내의 평지에 배치하고 있음을 주장하여⁵⁾ 그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사찰의 입지와 배치구성형식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을 통해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지형에 따른 현상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사적인 관점에 의한 해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 나라 사찰의 입지와 배치에 영향을 준 것이 불교의 교리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과의 연계를 갖는 交通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여 한국사찰의 立地에 있어서 交通과의 關聯性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그 동안 우리 나라 사찰의 입지 및 배치에 대한 성격을 막연하게 禪宗과 密敎에 대비시킨 해석에서 벗어나 종교시설 자체를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활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해봄으로써 한국 사찰건축의 특성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그 동안 佛敎建築에 대하여 진행하였던 탐이나 금당을 중심으로 한 양식적 분류 방식이나 불교의 敎理的 해석에 따른 배치의 분류로서 보다는 일상적인 生活과의 관계 속에서 佛敎建築을 해석해보고자 한다. 불교가 도입 초기에 있어서는 불교의 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형적 구성

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교로 인정되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생활종교로서 뿌리 깊게 정착이 된 이후에는 종교건축 자체에서도 종교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삶을 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는 불교 자체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토착신앙을 소화해내면서 독특한 불교문화를 만들어 낸 것과 같이 불교건축 역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반영해 범으로써 우리 나라 나름의 불교건축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각종 寺誌, 地圖, 古文獻 등의 분석과 답사 등을 통해 창건설화에 나타난 사찰의 교통과의 관계, 사찰이 交通路와 연계됨으로서 지니는 정치, 군사, 사회적 성격 그리고 고려시대 이래로 교통건축의 기능을 담당했던 院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寺刹과 交通路와의 관계를 지도를 비교하여 사찰의 立地가 교통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찰의 창건설화와 전래과정

사찰의 창건 설화는 불교의 영적인 힘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感恩寺와 같이 불교의 호국적인 사상을 전하기도 하고⁶⁾, 浮石寺와 같이 선묘의 화신인 용이 조화를 부려 큰 바위로 변하여 굳직한 무리를 내쫓고 의상을 구해냈다는 이야기 등이 있다.⁷⁾ 다소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지만 창건설화 속에는 사찰이 지어진 배경과 사찰의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시해주고 있다.

창건설화 속에서 사찰 입지가 교통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전남 곡성의 觀音寺의 경우 백제의 홍장이 진나라 왕후가 되어 많은 재물과 관음불상을 배에 실어 본국으로 보내어 배가 도달한 곳이 성덕사라는 절이었는데 그 이후로 觀音寺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⁸⁾ 왕후가 많은 재물을 실어 보낸 배가 닿을 수 있는

6) 「三國遺事」, 卷 2 萬波息笛

7) 「三國遺事」, 卷 4, 義湘傳敎
「三國史記」, 新羅本紀 7, 文武王

8) 전영진, 「한국사찰에 얽힌 이야기」, 保景文化社, 1994, p.17~19

3) 김봉렬, 앞의 논문, pp.47~49

4) 李演魯, 「新羅 寺刹의 立地에 관한 研究」, 고려대 석사논문, 1997, p.34

5) 李演魯, 앞의 논문, p.61

곳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곳에 절이 있었다는 것을 통해 교통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전북 익산 금마면 彌勒寺는 백제 무왕이 부인과 함께 행차하던 중 용화산 밑 큰 못가에 이르러 미륵삼존이 나타나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린 뒤 그곳에 절을 세우기로 하니 지명법사가 하루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서 평지로 만든 후 미륵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⁹⁾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왕의 행차가 가능한 道路邊에 미륵사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또 충북 보은군 속리산 福泉庵에 대한 이야기 중 범정스님이 아내와 친구를 대동하고 읍내에 장보러 가다가 자신이 수도하던 북천암에 이르렀다는 기록¹⁰⁾이 있고 서흥군의 續命寺에 대한 이야기는 노파가 행장을 준비해 길을 떠났는데 얼마 못가 날이 저물어서 서흥의 어느 절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또한 경북 경주시의 白月山 南寺에 대한 이야기는 길을 가던 한 남자가 북암에 와서 다음과 같이 자고 가기를 청하였다는 것이다.

“날저문 산속에서 갈길 아득하고,
길 없고 인가가 머니 어찌하리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려 하오니,
자비하신 스님은 노하지 마오.”¹¹⁾

따라서 이들 창건설화를 통해 寺刹이 交通路와 연결성을 지녀 사람들이 여행도중 머무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불교가 인도와 중국을 거쳐 삼국에 전래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교통로를 중심으로 전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찰의 입지가 교통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고구려에서 신라로 불교가 전래된 길이라고 생각되는 竹嶺, 마아령, 마구령, 관적령, 늦은목이 등은 고구려 불교문화의 신라 전

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교통로상에 있는 영주, 순흥, 봉화 지역에 출토된 고구려계 미술품들은 교류가 활발하였던 6~7세기경에 조성된 것¹²⁾으로 이를 잘 나타내어 준다. 그리고 신라에 불교를 전한 阿道도 언덕길이란 뜻의 이름이고 그의 어머니 高道寧과 肖門寺의 順道도 이름에 길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3. 사찰 입지의 정치·군사·사회적 성격과 교통

3-1. 신라 및 통일신라

불교가 도입되면서 처음부터 체계적인 사찰이 건립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경우 고구려에서 온 墨胡子에게 불교를 전해받은 毛禮가 자기 집에 토굴을 파고 개인신앙으로 출발하다가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되어 진흥왕 5년에 경주에 흥륜사가 건립되었다.¹³⁾ 개인적 신앙의 석굴사원이 지상에 가람사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되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¹⁴⁾ 따라서 지상에 가람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불교의 국가 공인과 흥륜사의 건립을 바탕으로 신라는 개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단일한 종교사상으로 귀일시킴으로써 고대 국가의 확립과 사상적 통일을 꾀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¹⁵⁾ 즉 불교를 三山·五岳 등 토착적인 산악숭배의 고유신앙¹⁶⁾과 결합시키면서 화엄사상을 기반으로 신라가 원래 불국이었던 佛國土思想을 전

12)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p.184

13) 「三國遺事」卷第3 興法 阿道基羅

「三國史記」新羅本記 第4 法興王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에 이미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고 백제는 한산주에 절을 건립했다는 기사가 있다.

14) 홍윤식, 「한국의 가람, 민족사」, 1997, p.35

15) 許興植, 「高麗社會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83, p.425

16) 특정한 산악을 지칭하여 숭배하는 전통은 고대의 崇天的 경향에서 국토의 보호와 비보의 차원으로 전개되고, 이는 다시 주·군·현의 보호와 민간의 삶의 장소의 보호로 전개되는 의미의 변화를 보이면서 신라에서 조선조에 이르는 유구한 전통의 한 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李元教, 「傳統建築의 配置에 대한 地理體系的 解釋에 관한 研究」, 1992, 서울대 박사논문, p.43

9) 「三國遺事」, 권 2, 무왕

「三國史記」百濟本紀 5, 법왕2, 무왕 35, 삼국사기에서는 이 절의 이름이 王興寺로 기록되어 있다.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6, 報恩縣

11) 「三國遺事」卷3, 南白月二聖 努盼 夫得 担怛朴朴

개시켜나간다.¹⁷⁾

불국토사상의 근거는 「三國遺事」를 통해 알 수 있다. 고구려인인 阿道가 신라에 불교를 전할 때 그의 어머니 高道寧이 “신라는 지금도 金橋東 天鏡林, 三川岐, 龍宮南, 沙川尾, 神遊林, 壻講田, 등 前佛時의 7개 가람 터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불교를 전하라”라는 기록을 통해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前佛七伽藍의 위치는 경주 월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분포되어 실제 가람으로 구축되며 狼山 도리천의 불국토사상 그리고 황룡사의 창건에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¹⁸⁾

위치	사찰	창건연대
天鏡林(金橋東)	興輪寺	진흥왕대 낙성
三川岐	永興寺	진흥왕
龍宮南	黃龍寺	진흥왕
龍宮北	芬黃寺	선덕왕
沙川尾	靈妙寺	선덕왕
神遊林	天王寺	문무왕
壻講田	曇嚴寺	

표 1. 전불칠가람 (이원교,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p.4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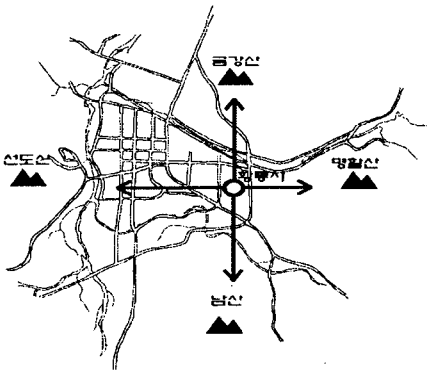


그림1. 황룡사 입지 개념도¹⁹⁾

황룡사의 위치는 五岳思想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중심부는 五岳의 三岳인 금강산, 선도산, 남산과 오악의 하나인 토함산의 자산인 명활산을 남북

으로 이어주는 중심점에 놓여 있다.²⁰⁾ 이는 黃龍寺가 新羅의 중심에 놓여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제 불교는 불국토인 신라의 국교로서 신라 사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前佛七伽藍과 黃龍寺의 입지에 대한 생각은 통일 이후 통일신라 전체를 佛國土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된다. 義湘의 華嚴十刹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일신라가 관할하던 전지역에 골고루 배치하여 각 지역에 대한 사상적, 정치적 중심성을 華嚴十刹²¹⁾이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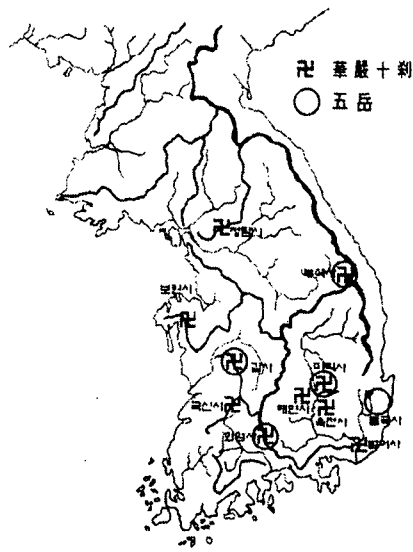


그림 2. 화엄십찰의 위치도

당시는 통일 전후로 지방 관리의 파견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寺刹이 설치됨으로서 종교적인 통합과 함께 정치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華嚴10刹의 중심이 된 浮石寺의 立地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의 반향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시점에 竹嶺을 경영할 수 있는 곳으로, 부석사의 창건은 바로 신라 국경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²²⁾ 즉 거점확보를 위한 시

17) 洪潤植, 「三國遺事와 韓國固有文化」, 원광대학교출판국, 1985, pp.326~327

18) 李元教, “傳統建築의 配置에 대한 地理體系의 解釋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2, p.48

19) 황룡사 배치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하게 직교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황룡사에서 주변을 둘러싼 4개의 산을 볼 때 중심적 위치에 배치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 이원교, 앞의 논문, p.50

21) 북악 태백산-浮石寺, 서악 계룡산-甲寺, 중악 공산-美理寺, 남악 지리산-華嚴寺, 양주 금정산-梵魚寺, 전주 모산-國神寺, 강주 가야산-海印寺와 普光寺, 비파산-玉泉寺, 응주 가야협-普願寺, 한주 부아산-靑潭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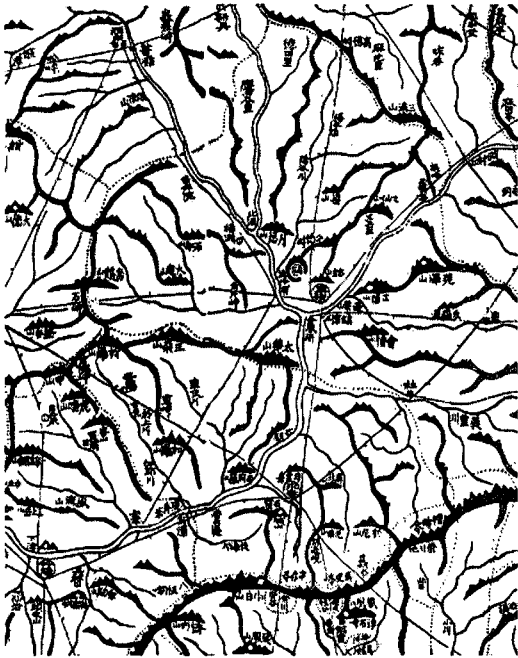


그림 3. 부석사 주변의 도로망 (김정호, 대동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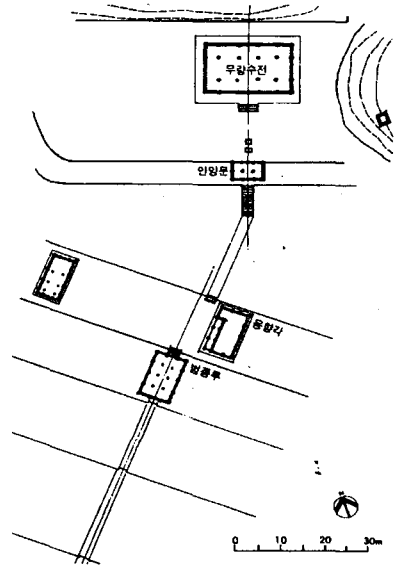


그림 5. 부석사 배치도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진입과정에서 경배하여야 할 대상을 지향하는 선적구성으로 방향성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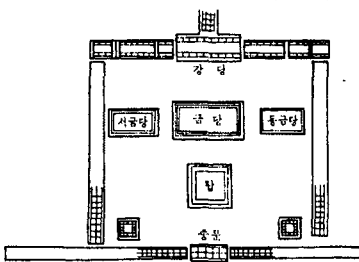


그림 4. 황룡사의 배치도 (대상 중심의 구성성을 나타냄)

설이 정치기구가 아닌 종교시설로서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신라 불교의 성격은 통일전 중앙통치적 의미의 왕 또는 귀족 중심에서 모든 중생을 포용하는 전국토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으로 확장이 된다. 이는 모든 세력을 끌어 안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불교는 통일국가를 유지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었다.

불교의 이러한 성격변화는 사찰의 配置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초기 사찰배치는 승려들이 불도를 수행하기에 알맞도록 이룩된 것이었으나, 대승불교 이후의 사찰배치는 일반민중의 신앙심을 보다 효과적으로 고취시키는 경향을 강하게

지니게 된다.²³⁾ 즉 塔을 중심으로 했던 구심성의 성격을 지닌 사찰배치는 진입과정에서부터 경배하여야 할 대상을 지향하는 선적 구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대칭적 구성에서 비대칭적 구성으로 변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것은 고대 사찰의 배치 형식은 金堂과 中門과의 관계를 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이후의 사찰배치는 진입과정에서부터 배치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 기준들이 불분명하다고 하겠다.

비대칭 배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사찰들도 主佛殿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성은 일정한 정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주불전 앞마당은 주불전의 크기에 의해 마당의 크기가 조절되고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 양쪽에 僧房이 놓여지기도 하고 다른 곳에 놓여지기도 한다. 다른 부속 건물들의 변화가 많더라도 主佛殿을 중심으로 한 공간은 초

22) 김봉렬, 「이땅에 새겨진 정신」, 이상건축, 1999, p.59 부석사의 교통로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金潤坤, 「羅代의 寺院莊舍의 研究 -浮石寺를 중심으로」, 「考古歷史學誌」 7. 1991 참조

23) 홍윤식, 앞의 책, p.21

기의 배치원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배치도상에서 나타난 평면의 형태에서는 비대칭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주불전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분위기는 초기 불교의 상태가 유지되어왔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존해 있는 사찰들도 주불전의 공간 구조는 원형적인 상태가 다른 전각보다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藤島玄治郎의 견해처럼 통일신라 이후 禪宗의 영향으로 산지사찰이 조성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래되어오던 신라의 五岳思想이 불교의 사찰입지에 영향을 미쳤고, 종교를 이용해 통일신라 국토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찰의 입지가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통일신라 영토에 고르게 분포시킨 24개의 小祀와 같은 개념으로 古代의 崇天的 개념이 국토의 保護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리에 대한 개념으로의 변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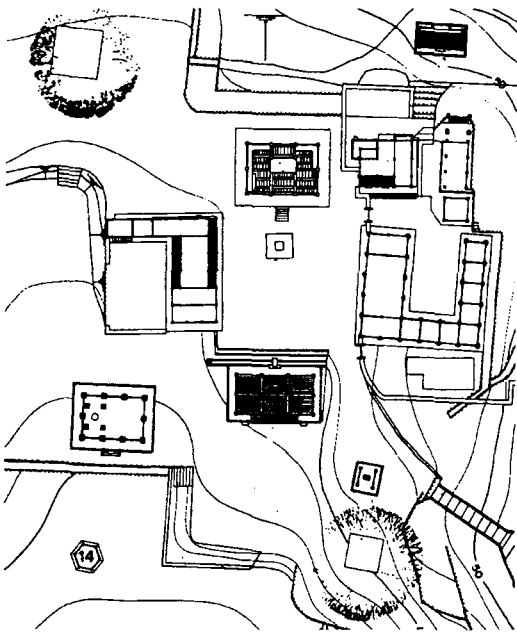


그림 6. 신록사 배치도 (경기도, 경기도 지정문화재) - 도면상으로는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주불전을 중심으로 한 마당의 분위기는 초기 불전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신라 후기 850년을 기점으로 선종의 확산은 경주 중심에서 지방으로의 사원 확산을 가

속화 시켰다. 禪宗은 直指人心, 心傳 등 주관적 세계 계승을 강조하여 종파의 인맥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중앙집권의 수도에서보다 지방 사회에 깊이 침투 지속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⁴⁾ 이들은 중국과의 해상 무역을 떠면서 독립된 세력으로 성장해 나갔다.

예성강을 중심으로 한 龍建 세력은 唐의 僞仰宗에 유학한 順之를 맞아 五冠山에 瑞雲寺를 창건하였고 金昕은 서산의 聖住寺를 창건하여 慧懸和尚을 중심으로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중국과의 항로에 가장 용이한 靈巖지역과 가까운 장흥의 寶林寺, 김해지역의 鳳林寺는 모두 해로와 강로를 통한 당과의 연결이 용이하고 무역을 기반으로 한 경제기반을 확장하여 독자적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²⁵⁾ 즉 사찰은 지방 호족들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데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이다.

3-2. 고려시대

고려의 태조 왕건은 통일 전쟁 중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사원에 대한 포섭을 하였다. 醴泉의 龍門寺, 金山의 直指寺, 淸道の 奉聖寺, 陝川의 海印寺 등의 사적에는 태조가 이들 사원으로부터 전략적 지원을 받고 그 보답으로 경제적 지원과 공인하였음을 특기되고 있다.²⁶⁾ 이들은 대개 경주를 둘러싼 태조와 견훤의 충돌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당시 사찰에는 승군이 존재하였고 지세를 이용한 작전 등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태조 왕건은 지방 사원을 포섭하여 전략의 거점지로 활용하였다. 후삼국 통일까지 태조가 창건한 16개의 사찰 중 유일하게 개경에서 벗어난 연산의 개태사도 후백제와의 전략적 요충지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사찰의 군사적 중요도 때문에 사찰 배치에 대한 사상적 연원을 선종사상이나 화엄사상, 밀교사상 또는 특정한 종교사상과는 무관하게 국가재편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는 견해²⁷⁾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사찰 입지의 중요성을 안 왕건은 고려를

24) 許興植, "禪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25)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民族社, 1998, p.110

26) 한기문, 앞의 책, p.110

27) 許興植,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86, p.441

개국하고 도선 왕사로 하여금 개성 내에 法王·王輪 등 10개의 사찰을 창건하게 하고²⁸⁾ 26寺를 도성 내외에 창건하여 신라의 경주 중심의 불교 교단 조직을 개경에 재편하였다. 이들 사원은 각종 불교 행사와 각 종파의 근거지로 삼았다. 그는 또 訓要十條 중 2條에서 모든 사찰은 道誥 대사가 모두 山水의 順逆을 推占하여 開創하였으므로 이제부터는 王이나 公侯·后妃 또는 朝臣 등이 願堂을 핑계로 함부로 創寺建庵함을 엄중하게 금지시키고 있다.²⁹⁾ 또한 光宗代부터 僧科제도의 시행으로 관료와 같이 국가가 선발하고 승계를 주어 배출한 고급 승려를 각 사찰에 파견하여 사찰을 점차 국가 통제권에 흡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사찰을 통제권에 흡수하여 裨補記라는 문서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소재 사찰을 중심으로 그 산천의 형세, 토착세력의 상황까지 파악하여 지방관 - 승록사 - 도평의사사 - 국왕으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통한 통제망을 갖추었다. 이로서 사찰을 모두 국가·주·부·군·현의 비보 사찰로 파악하고 지방 행정과 함께 교권적인 체계도 갖추어 이원적인 통치조직을 구성하였다고 추론된다.³⁰⁾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高麗는 왕 이하 전 백성이 각종 종교행사에 참여하였다. 「高麗史」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왕이 사찰에 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毅宗의 경우 을유19년과 병술20년에는 거의 사찰에서 기거했을 정도였다. 다른 왕의 경우도 王室의 祭祀 및 祈雨祭 등 국가 운영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사찰을 찾았다. 왕의 이러한 행적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개경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한 燃燈會, 八關會, 석가탄일의 행사 및 왕의 생일³¹⁾은 국가

적인 행사로 僧侶는 물론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였다. 팔관회는 개경과 서경에서만 열렸기 때문에 전국 각지의 순례 인구가 이 두 도시에 집중되었다. 계절적으로 보아 팔관회는 추수기 이후에 열렸으므로 순례자의 이동규모는 대단하였다. 이때 개경에는 대규모 시장이 열려, 宋, 倭, 아라비아의 상인들까지 몰려들었다.³²⁾

고려의 사찰은 交易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기관의 하나였다. 당시 사찰들은 일반적으로 대주주로서 소속 농장에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였고 鹽田을 소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寺院에서는 내수용 수공업품을 생산하였다. 佛寺에서 생산된 기와, 벽돌, 누룩, 술, 종이, 국수, 직물, 불구 등은 품질이 우수하여 다량이 시장에 출하되었다³³⁾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활동을 한 寺刹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交通路에 사찰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각 사찰은 경제활동을 위해 奴婢들을 두게 되었다. 奴婢들은 주로 사찰주변에서 農奴화된 佃戶들과 함께 村落을 형성하며 생활하였는데 이는 점차 촌락들과 사찰이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寺下村으로 발전하게 된다.³⁴⁾ 이러한 사하촌은 도시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³⁵⁾

사찰이 交通路에 배치되었음은 興王寺를 짓기 위한 철의 공납에 백성의 피로움을 덜기 위하여 군용을 전용하게 한 것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唐史에 이르기를 거리에 차도록 절간을 많이 세우더라도 나라의 위대한 환난을 구출하지 못하니 중들이 길에 잇대인들...(후략)”

文宗 21년(1067)에는 興王寺가 완성되었는데, 이 절은 2천 8백 칸으로 낙성식에 참가하기 위해 각 지방으로부터 모여 든 중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 중 불교에 수양이 있는 자 1천명을 골라서 낙성식에 참가시키고 이들을 흥왕사에

28) 「高麗史」世家 1, 太祖 2年 3月條 創法法王王輪等十寺于都內 이들 10개의 사찰은 법왕사 왕륜사 이외에도 慈雲寺, 內帝釋院, 舍那寺, 普濟寺, 新興寺, 文殊寺, 地藏寺 등으로 이들 사원들의 위치를 기준으로坊이 갈렸다고 하겠다.

29) 「高麗史」, 世家 2 太祖 26年條

30) 李載昌, 「高麗寺院經濟의 研究」, 亞細亞文化社, 1976, pp.20~23

31) 「高麗史」 권 제 7 世家 제 7 文宗 조에 “成平節王生日也 每過節日國家設祈禱迎福道場於外 帝釋院七日文武百官於興國寺東西兩京四都護入牧各於所在佛寺行之以爲恒式” 왕의 생일 잔치는 7일간 계속하였는데 문무백관은 興國寺에서 東京, 西京 및 4도호부 8목에서는 각각 절에서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상례화되었다.

32) 崔永俊, 「嶺南大路- 韓國古道路의 歷史地理的 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90, p.109

33) 趙璣, 「韓國經濟史」, 日新社, 1972, pp.157~58

34) 朴英珉, “寺下村의 空間 構成에 관한 研究- 梵魚寺上麻·下麻 마을을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논문, 1992, p.7

35) 朴鍾毅, “寺下聚落의 研究- 麻谷寺 寺下聚落을 중심으로”, 공주사대논문집, 1986, p.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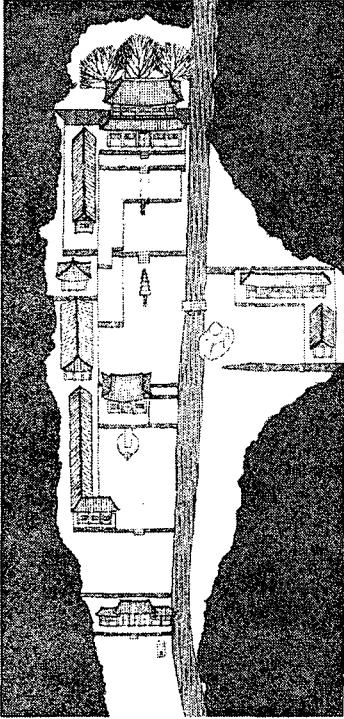


그림 7. 미륵대원 추정 복원도 (출처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이상건축, 1999, p.32)

남게 했다는 기록³⁶⁾은 당시 인구 이동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고 하겠다.

또 숙종 9년 開京에서 南京으로 가는 길에 “차, 향, 의복 등 물품을 길가의 절에 시주하였다.”³⁷⁾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형의 글에 “배와 수레가 이르는 곳에 탐묘가 서로 바라보고 있다”³⁸⁾라고 한 것이나 “사찰이 민가와 섞여 있고 내 옆과 산꼭에는 사원이 아닌 곳이 없다”³⁹⁾라는 표현은 사찰의 입지와 교통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하겠다.

4. 寺刹의 配置와 院宇

金富軾의 惠陰寺 新創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

봉성현에서 남쪽으로 20리쯤 되는 곳에 조그마한 절이 있었는데 ……(중략) 동남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위에서 내려가는 사람모두들 이길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략) 항상 복잡하고 인적이 끊어질 사이가 없는데, ……(중략) 중들을 모집하여 그 허물어진 집을 새로 건축하고 양민을 모아들여 그 옆에 가옥을 짓고 노는 백성을 정착시키면 ……(중략) 절이 불당과 유숙하는 건물부터 주방, 창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소가 마련되었고⁴⁰⁾ …(후략)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혜음사를 신축하면서 양민을 모아들여 그 옆에 가옥을 짓고 노는 백성을 정착시킨다는 내용이다. 단순하게 하나의 교통건축으로서의 시설물만 신축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촌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寺下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의 교통건축인 驛舍에서 驛村을 구성하여 교통의 편의를 도모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하겠다. 이러한 寺下村은 현재 사찰 주변의 민박촌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崔沖이 쓴 奉先弘慶寺記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

직산현의 성환역에서 북쪽으로 1 마장쯤 되는 곳에 새로 절을 세운 것은 여관을 만들어서 공무로 다니는 사람이나 사사로운 일로 다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과 같은 종류에 속한다. …(중략) 비록 갈래길로서 중요한 지점이지만 사실은 왕래하기가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중략)… 堂殿門廊 등을 합하여 200여간에 이르렀고 …(중략)… 또한 절의 서편에 여관(客館)을 마주 보고 세웠는데, 한 장소에 80칸쯤 되었다. 이름을 廣緣通化院이라 하였다. 이곳도 겨울에 사용될 따뜻한 온돌집과 여름에 사용할 넓직하고 시원한 涼屋이 마련되었, 식량을 저축하며 말 먹이도 저장하였다. (후략) …⁴¹⁾

36) 『高麗史』 권 제7세가 제7 文宗 條

37) 『高麗史』 卷 第 12 世家 第 12 肅宗 二 9年 條 “又出內府茶香衣襪施于路傍佛舍”

38) 최형, 『頭陀山看藏庵重營記』, 拙藁千百, 권 1, 韓基汶 앞책에서 재인용

39) 『高麗史』 권115, 열전, 이장 佛利民居參伍錯宗 川旁山曲無處非寺

40) 東文選, 惠陰寺 新創記, 金富軾…工既告畢, 齋濟祠息宿, 以室廚庫, 咸各有所…

41) 東文選 奉先弘慶寺記

今之於禪山縣成歡驛北路一牛鳴地, 新置寺舍者, 卽其類也, 地無長短之亭, 人煙隔絕, 有蕉蒲之澤, 劫賊頗多, 雖趾路之要衝, 實往來之難便, 不可終否, 屬於盛時 …凡造得堂殿門廊等共二百餘間…又於寺西, 對立客館, 得一區許八十間, 號曰廣緣通化院, 斯

이 기록을 통해 길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200여 간의 면적을 갖고 있는 사찰이 있고 맞은 편인 서쪽에는 객관의 기능을 하는 80여간 이상의 廣緣通化院이 세워져 있고 겨울을 나기 위한 온돌집과 여름을 지내기 위한 집이 분리되어 식량과 말먹이를 저장할 창고까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奉先弘慶寺의 廣緣通化院의 배치와 구조는 彌勒里寺址 彌勒大院⁴²⁾의 배치 유형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즉 길을 따라서 寺刹과 院이 나뉘며 사찰은 독립된 진입과정을 갖게 되고 길가에서 院으로 직접 들어가서 쉬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송광사의 배치도(그림 8)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 물론 院은 여행중 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실용적인 공간 구성을 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는 단지 奉先弘慶寺記의 廣緣通化院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며, 공주의 普通院은 지세에 따라 건물을 세우고 옷 갈아 입는 방, 음식차릴 공간, 온돌방, 여름을 위한 공간과 단청까지 칠해져 있음을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설명하고 있다.⁴³⁾ 懷德縣 彌勒院의 경우 동서 양쪽에 男女가 머무를 곳을 따로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寺刹이 임시 방편으로 여행객을 재워주는 곳으로 사용된 곳이 아니라 交通路의 요지에 세워지면서 院을 세워 그곳에 여행객들이 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찰이 순수한 종교적 성격에서 확장되어 일상생활과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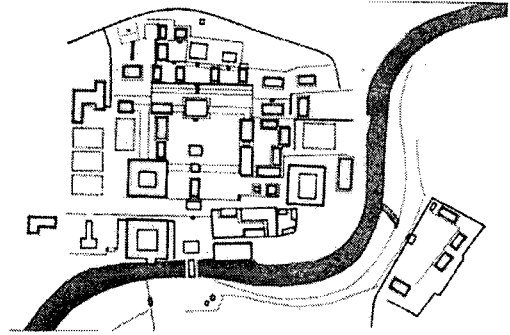


그림 8. 송광사 배치도 (출처-김성우외, 송광사, 대원사, 1997, p.46)

계된 생활종교로서 변하게 됨으로서 사찰에는 이동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院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寺刹이 交通과의 관련을 지니고 있는으나 사찰 배치는 종교적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앞서의 奉先弘慶寺나 彌勒大院의 경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사찰의 길 건너편에 院이나 旅館등을 설치하고 있다. 乾鳳寺의 경우 13間의 旅館⁴⁵⁾이 축조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찰배치에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려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院宇는 교통로에서 사찰 진입의 초입부분에 설치되어 이동 중인 사람들의 휴식을 돕고 사찰의 경계활동을 행하기도 하였다.⁴⁶⁾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院宇의 수는 1309개로 驛舍의 수가 549개에 그친 것에 비교하면 院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院들이 모두 사찰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원의 명칭이 불교용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고 院의 설립자 가운데 승려가 많다는 사실 그리고 조선 초의 寺刹整理 당시에

亦溫廡冬密, 涼屋夏寬, 積以糗糧, 貯之菽秣

42)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굴 조사되고 있는 忠北 中原郡 彌勒里寺址 발굴조사보고서(淸州大學 博物館, 1978)에서 미륵리 사지가 있던 “계림령일대는 삼국시대부터 군사 및 교통의 요지로서 충주의 嘉興倉을 비롯한 남한강의 漕運과 연계되어 각 지역과의 연계에 대한 통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북서의 계림령을 넘어 大寺里에는 지명이 암시하듯 일명 寺址가 수개처에 있으며 북의 월악산과 그 남쪽 기슭에는 月光寺址·獅子頻迅寺址·德周寺址·월악산 동쪽 기슭에는 神勒寺址가 있고 또 寒喧嶺을 넘어 문경면 觀音里에도 이곳으로 연결되는 古道街에 많은 불적이 있고, 이 寺址의 동쪽으로 300m떨어진 언덕 위에 삼층석탑이 있어 많은 佛蹟이 산재 분포된 일대가 불교의 요람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라고 하여 교통의 요지에 불교 사찰이 밀집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4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7 公州牧 驛院條 李仁老의 東文選 중 公州 東亭記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公州의 東亭이 普通院으로 바뀐 것으로 생각한다.

44) 「新增東國輿地勝覽」卷 18 懷德縣 驛院條 ... 作室于東西以別男女之所 ...

45) (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大雄殿9間, 八相殿9間, 觀音殿3間, 四聖閣6間, 冥府殿6間, 獨聖閣3間, 山神閣1間, 丹霞閣1間, 眞影閣6間, 泛鍾閣1間, 鳳捷樓14間, 普濟樓6間, 大持殿9間, 東持殿9間, 西持殿9間, 御室閣6間, 御香閣3間, 東庫3間, 樂西庵168間, 極樂殿165間, 萬日院89間, 普眼院58間, 禪院9間, 圓寂庵12間, 事務所13間, 不二門1間, 旅館13間, 葬儀庫3間, 城隍堂2間, 水碓室2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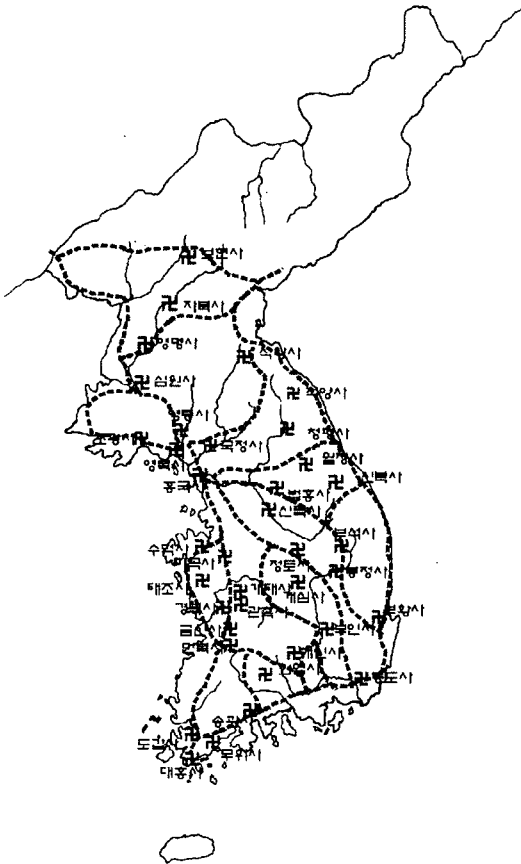


그림 9. 사찰의 입지와 고려시대 역로와의 관계

모두 國有化 된 점을 고려 할 때 대부분의 院은 佛寺에서 건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⁴⁷⁾

그런데 院은 주로 일반 백성들에 이용되면서 조선 후기에 가서는 급격히 줄어들는데 輿地圖書의 기록으로는 驛은 494개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院의 수는 162개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寺刹을 중심으로 한 고려시대의 민간 교통 즉 교역과 종교적 행사로 인한 일반 백성들의 이동과 교통로의 조직은 오히려 土農工商에 대한 의식과 자급자족의 성격을 지니고 있던 조선시대보다 앞섰다고 하겠다.

5. 고지도의 분석

사찰의 입지와 교통과의 관련성은 지도 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림9는 高麗時代의 중요사찰과 驛路와의 관계를 그린 것으로, 사찰의 입지와 驛路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함을 알 수 있다. 호족 연합체적 성격으로 출발한 高麗는 왕권 강화 및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6科 22驛道의 驛制를 활용하였다. 驛路와 寺刹의 입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고려의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과정에서 사찰들을 적절히 이용했었다는 것과 관련을 지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사찰의 立地와 配置가 交通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驛路와 관련이 없는 사찰의 경우는 바다 근처나 강가에 입지하고 있는 데, 이것도 水路를 이용한 漕運制와 관련을 지닌다고 하겠다.⁴⁸⁾

그림 10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사찰들을 표시한 것으로 주요한 산악지대인 동쪽의 강원도나 경상도 보다 충청도, 전라도의 서해안 쪽 지역 강과 평야지대에 훨씬 많은 사찰들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도 전라도 지역의 사찰들도 산과의 관련을 지니고는 있지만 이들 지역의 산은 동해안 쪽 深山幽谷의 깊은 산이라기보다는 서해안 또는 강과 연관된 산으로, 통행이 가능한 산을 중심으로 사찰이 입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승유역불 정책으로 말미암아 점차 사찰의 입지가 경상도, 강원도 및 평안도, 함경도 쪽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그림 11)과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山地伽藍을 전적으로 禪宗에 의한 영향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는 승유역불 정책으로 말미암아 도시나 평지에서 사찰들은 사라지고 주로 산지에 입지게 된다. 그런데 600여 년간의 승유역불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 불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산지에서 숙박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佛法을 전하는 등 비공식적인 교통건축으로서 일

46) 院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金鍾憲, “朝鮮時代 交通建築으로서의 院宇에 관한 研究”, 『건축역사연구』, 17, 1998, 12, pp.103~112 참조

47) 최영준, 앞책, p.268

48) 정진호, 전봉희는 “남한강 유역의 사찰의 입지와 배치에 대한 연구-고려시대와 조선 시대의 조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1999년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99, pp.601~606』에서 각 사찰들이 수로를 따라가면서 노드(node)

47) 최영준, 앞책, p.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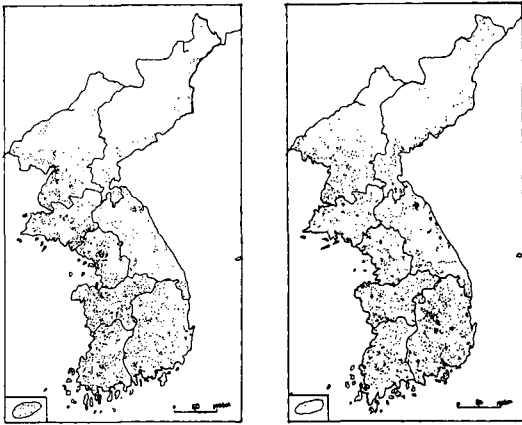


그림 10. 15c 사찰입지⁴⁹⁾ 그림 11. 18c 사찰입지⁵⁰⁾

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지도에서도 사찰들은 각 지역의 중요 시설물로 기록되고 있다. 1682년에 편찬된 것으로 보여지는 東輿備考는 833개의 사찰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김정호에 의해 1837년 제작된 청구도는 443, 1850년대 후반에서 1860~61년에 걸쳐 제작된 동여도는 520,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에는 229개의 사찰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작된 지도 중 가장 자세한 지도인 동여도의 기록이 비교적 정확하다고 보여지는데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사찰이 입지적 성격으로 인해 지리·교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東輿備考는 직접 그림을 통해 사찰들의 위치를 표기하고 있다. 이 그림들은 산 중턱 또는 산 밑, 산과 산이 이룬 계곡 사이, 산 뒤 등 상당히 정밀하게 사찰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輿地圖書에 나타난 다음의 그림들을 통해서도 사찰이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도를 볼 때 읍성을 중심으로 그 외곽을 싸고 있는 산지에 사찰이 입지하고 있어 읍성 진·출입에 있어서 사찰이 빈번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지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東輿備考
	15C	18~19C	17C
	사찰수	사찰수	사찰수
경기도	176	129	
(한성부)	18	14	67
(개성부)	15	12	
강원도	112	167	40
충청도	258	188	152
전라도	279	216	147+7(제주)
경상도	283	339	179
황해도	208	130	59
평안도	221	237	134
함경도	75	141	50
합계	1645	1573	833

표 2. 조선시대 사찰의 지역별 분포⁵¹⁾

지도명	동여비고	청구도	동여도	대동여지도
사찰수	833	443	520	229

표 3. 각 지도별 사찰 표기 수



그림 12. 동여비고 (김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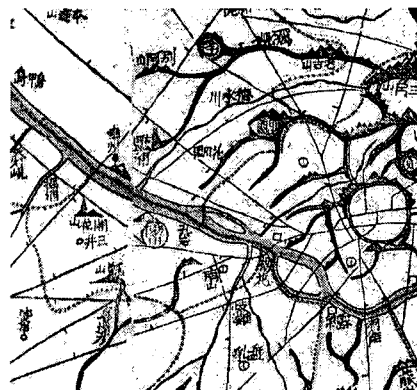


그림 13. 대동여지도 (김포)

49)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통해 朴鍾叙(“韓國寺刹의 分布類型考察, 地理學 研究”, p.344)의 작업을 참조로 재 작성

50) 輿地圖書의 기록을 통해 朴鍾叙(“韓國寺刹의 分布類型考察, 地理學 研究”, p.344)의 작업을 참조로 재작성

51)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의 자료는 朴鍾叙(한국사찰의 분포유형)을 참조한 것이고 東輿備考의 자료는 사찰의 그림이 이름과 함께 지도상에 그려진 것만을 개수로 산정한 것임. 사찰 이름만 있는것을 포함하면 약 900개 정도가 됨



그림 14. 東輿備考 (安州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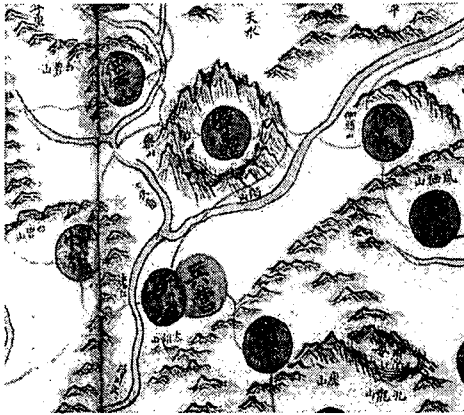


그림 15. 海東地圖 (안주일대)

12와 13)은 김포를 중심으로 하여 동여비고와 대동여지도를 비교한 것으로 교통로를 중심으로 사



그림 16. 東輿備考 (아산일대)

찰들이 줄을 이어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15) 역시 평양 위의 博州에서 安州를 거쳐 价川까지 동여비고와 해동지도를 그린 것으로 교통로에 사찰들이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 17)은 牙山에서 稷山까지의 동여비고와 대동여지도를 그린 것으로 교통로를 중심으로 사찰들이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조선시대의 모든 도로에 사찰이 배치되었다기 보다는 평지는 주로 역로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교통건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산길 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교통로의 경우 사찰들이 나름의 역할을 수행했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사찰의 배치는 강 어귀나 산이 중첩되어 길을 건너기가 어려운 곳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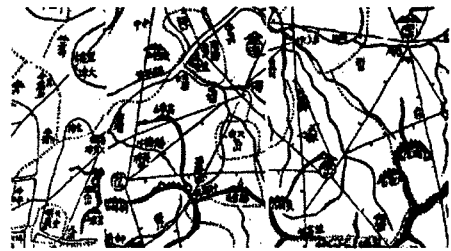


그림 17 大東輿地圖 (아산일대)

6. 결론

일상 생활과의 연계를 갖는 交通도 우리 나라 사찰의 입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여 한국 사찰의 立地와 交通과의 關聯性을 찾고자 한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寺刹의 입지가 交通과 연관되었음은 창건설화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불교의 전래 과정이 交通路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찰 입지는 교통과 관련되어 종교적 측면과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이는 삼국시대 고대국가로서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 사찰 입지는 주변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중요

51)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의 자료는 朴鍾叙(한국사찰의 분포유형)을 참조한 것이고 東輿備考의 자료는 사찰의 그림이 이름과 함께 지도상에 그려진 것만을 개수로 산정한 것임. 사찰 이름만 있는것을 포함하면 약 900개 정도가 됨

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에 따라 전략적 거점에 寺刹이 창건되었다. 통일신라 이후 불교는 왕, 귀족 중심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찰의 배치는 경배의 대상으로서 구심성을 띤 정형적, 규범적 구성에서 경배 대상을 향해 진입해 들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배치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주불전의 공간구성은 초기와 별로 큰 차이 없이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3. 고려 이후 불교가 정치적 측면에서 일상적인 생활종교로 바뀌면서 인구 이동에 따른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 기능을 院宇가 대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院宇는 寺刹과는 달리 실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었다. 승유역불 정책을 펴던 조선시대에서도 사찰이 있었던 交通路의 요지에서 半官 半民의 交通建築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찰에서 숙박기능을 담당했던 院宇나 旅館 등은 종교적 수행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길 건너편이나 주불전 등과는 분리되어 배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高麗史」
2. 「三國史記」
3. 「三國遺事」
4. 「新增東國輿地勝覽」
5. 「東輿備考」
6. 「大東輿地圖」
7.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 구성과 배치 형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8. 金聖雨, “삼금당 형식의 기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권 1호, 1990.2
9. 金鍾憲, “韓國交通建築의 變遷과 發達에 관한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98
10.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1. 李演魯, “신라 사찰의 입지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97
12. 李元敎, “전통건축의 배치에 대한 지리 체계적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2
13. 李燦, 「韓國의 古地圖」, 凡友社, 1991
14. 주남철, 「한국건축미」, 일지사, 1995
15. 한기문, 「고려사원의 구조와 기능」, 민족사, 1998
16. 허홍식, 「고려사회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17. 홍윤식, 「한국의 가람」, 민족사, 1997
18. 黃涇江,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1992

Relation between the Location of the Korean Buddhist Temples and Transportation

Kim, Jong Heon

(Assistant Professor, Paichai University)

ABSTRACT

There is an opinion that Korean Buddhist Temples located in mountains(山地寺刹) should be built since the Secret Buddhism was introduced and the Zen Buddhism was widely distributed over. But, Korean Buddhist temples were already in the mountai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Zen Buddhism. Moreover, Zen Buddhist temples were actually not located at mountainous region, but located at plain area in mountains. Thus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idea of that the location of temples were only under the influence of Secret Buddh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location of the Korean Buddhist Temples and transpor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the legends originated from the buddhist temples, the traditional maps, and the political situations, it has been disclosed that the locations of Korean Buddhist Temples have the relations with the traffic roads. Therefore politically, militarily, and socially, the Korean Buddhist Temple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since the Three Kingdoms. The Buddhist temples need lodging facilities called Won-Woo for the ordinary people, due to chang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dhism in Korea from politically to socially. But the lodging facilities stood apart from main region for the ascetic exercise of the Buddhist priests.